기획 연재

漢字도 우리글 ㊽

權 光 旭
小說家

⑩ 첩자疊字 · 겹말, 동의어 반복(承前)

수면水面을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아래를 물밑이라 하고 그 겉은 물위라 했다. 한자로 수면하水面下 · 수면상水面上이라 하면 될 것 같지만 수면하는 되어도 수면상이란 말은 없어 그냥 수면일 뿐이다. 이런 것이 말의 관용성이다. 그래서 수면하는 같은 수면에다 하下를 붙여도 첩자가 안되지만 수면상은 상上을 떼어야 첩자의 혐을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 물위 ’라 하면 될 것을 자꾸 ‘ 수면위 ’라 한다. 물에 ‘ 위 ’가 붙으면 첩자가 아니지만 수면에 ‘ 위 ’가 붙으면 또한 첩자임을 모른다. 물위라면 그냥 물의 표면에 닿아 있는 것에서부터 그 이상을 말하지만 굳이 수면위라 하면 수면에서 다시 간격이 떠 있어야 함을 또 모르는 것이다. 수제선水濟線은 저수지나 강변의 물가장자리에 나는 자국의 선이다. 또 망망대해에서 물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다. 가령 이런 어휘에도 영어의 전치사 개념 때문에 아래 · 위 · 속을 붙여대다 수제선 자체를 말할 기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혼천백지魂天魄地라 했다. 혼은 하늘로 오르고 넋은 땅속으로 잦는다는 뜻이다. 죽어서 넋과 몸뚱이인 체백體魄이 땅에 묻히는 것을 지하地下나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나 영혼이 승천昇天하는 것은 그냥 하늘로 오른다 하지 하늘 위로 오르거나 하늘속으로 오른다고 하지 않는다. 하물며 ‘ 화폭 화폭위에 ’라 해대는 것은 어쩔 것인가. 영어의 전치사 ‘ on ’은 어떤 면에 붙거나 닿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천장에 무엇이 붙었을 때도 ‘ on the ceiling ’이라 한다. 영어 따라 하기로 이제 파리가 천장에 거꾸로 붙어 있는 것도 ‘ 천장위에 ’라 할 것인가.

북악北嶽 · 도봉道峰 · 관악冠嶽 · 송악松嶽 · 설악雪嶽 · 화악華嶽 · 등에 다 산山을 덧붙여 북악산 · 도봉산 · 관악산 · 송악산 · 설악산 · 화악산 등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 굳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서재書齋가 이미 책의 실室이나 방房인데 서잿방이란다. ‘ 가성假聲으로 ’라면 될 것을 객쩍게 늘여 ‘ 가성의 음성音聲으로 ’라 한다. 순하게 ‘ 거짓 목소리로 ’라 해도 될 것을 왜 염소같이 비탈로 도는가. 또 ‘ 춤추듯 난무亂舞한다 ’고 예사로 쓰고 말한다. ‘ 어지러이 춤춘다 ’거나 그냥 ‘ 난무한다 ’면 되는데 듣지 않는다. ‘ 얼버무리며 무마시키려 한다 ’는 따위도 더듬기임은 마찬가지이다. ‘ 얼버무리려 한다 ’거나 ‘ 무마시키려 한다 ’면 간결해질 것을 왜 둘을 겹치느라 버리적대는가. 누구의 문하門下에서 배우거나 수련했다 할 때 ‘ 문하안에서 ’라 한다. 서구어의 ‘ 전치사병前置詞病 ’이다. 오죽 그쪽을 효빈하고 싶으면 이러는가. 목회자가 ‘ 예수안에서 ’를 입에 달고 쓴다. ‘ 예수의 품안에서 ’라 하면 좀 안될까. 지난날 우리 사람들이 ‘ 공자 안에서 ’나 ‘ 부처 안에서 ’라 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던 것 아닌가. 모든 신문이 ‘ 단상壇上에서 ’를 ‘ 단상 위에서 ’라 쓴다. ‘ 단상壇上 ’을 ‘ 단상壇床 ’으로 조어造語해 구사할 만큼 그들이 한문漢文에 통해서 일까. 더욱 포복抱腹할 노릇은 언론이 ‘ 단상壇上 아래 ’라고 버젓이 방송하고 써대면서 으스대는 것이다. 언론고시를 치른 그들의 우리말 실력이 단상壇上의 반대말 ‘ 단하壇下 ’가 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 단상壇床 ’이라는 신조어를 내겠는가.

정부에 식품의약품食品醫藥品관리단인가 하는 기구가 있다. 식의약품食醫藥品이면 될 것을 굳이 품品을 하나 더 넣어 첩자를 만든다. 소방방재청消防防災廳에도 방방防防의 첩자가 있다. 소방消防은 무엇이고 방재防災는 무엇인가. 불이 화재火災이니 같은 재災 아닌가. 또 재난災難도 소실消失이니 소방청消防廳이면 되잖는가. 소방이 개화시開化時 도입어이고 원래 우리의 소방서消防署는 금화사禁火司이다. ‘ 일제 잔재 ’가 또 싫으면 ‘ 방재청 ’이라면 되지 않을까. 문교부文敎部는 교육부敎育部로 바뀌더니 이제 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라고 문장처럼 늘여 읽도록 바뀌었다. 우리나라 정부 기구 이름은 회전문처럼 바뀌어 백성이 정신을 차릴 수 없다. 한편으로 일제 잔재를 없앤다고 그리 표방하면서 그 본산이 되어야 할 문교부에서 인적자원이 웬 소린가. 인적人的의 적的이야말로 우리말 소유격조사 ‘ 의 ’의 일본어투 아닌가. 이 ‘ 적的 ’이, 우리가 소유격조사 ‘ 의 ’를 쓰기를 최대한 억제하는 수사법 때문에 그 대안으로 무척 많이 쓰이고 있다. 심지어 안방극장을 석권하는 고대 사극 대사에서조차 이 ‘ 적 ’이 무수히 튀어나오는 엉터리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고 문교부마저 인적자원부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 멋진 ’말을 쓰고 싶으면 ‘ 인력人力 ’자원부라고라도 해서 비켜갈 수 없는가. 또 이를 단축해 ‘ 교자부敎資部 ’식으로 하면 어떤가. 상공부商工部의 ‘ 공工 ’을 떼어다 공업진흥청工業振興廳이니 동력자원부動力資源部 · 산업자원부産業資源部 등으로 이름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농업진흥청農業振興廳을 ‘ 농진청 ’이라 수월하게 부르고 쓰듯이 ‘ 공진청 · 동자부 · 산자부 ’라 부르고 썼으며 지금도 쓰고 있다. 외교통상부外交通商部도 갖춰 부르기 번거로워 ‘ 외교부 ’라 하던데 이는 ‘ 외통부 ’라면 어감이 안좋아서인가보다. 전자에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이름이 기니까 3음절 이름을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이 EPB라 했다. Economic Planning Board의 약어이다. 그러나 EPB는 소수에게나 통할 기호이다. 같은 3음절인 경기원經企院으로 하면 영상을 지닌 소리이므로 그 뜻의 폭과 전달성이 무슨 기호인지 요령부득인 EPB와 비길 바 아니다. 언젠가 서구어가 한자에 못미쳐 오금을 못펼 날이 올 것이라 하면 듣는 이가 다 실소한다. 그러나 한자의 축약 효용성을 서구어가 영구히 따르지 못할 것을 나는 믿는다.

원래 버스 정류장 표지는 ‘ 이대입구梨大入口 ’인데 지하철이 들어서며 그 역은 ‘ 이대 ’로 단축되었다. 신촌역도 그저 ‘ 신촌 ’이 됐는데 사실 이곳은 ‘ 신촌오거리 ’나 ‘ 신촌로터리 ’이던 것이 신촌으로 단축된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 다음의 현재 가릉역佳陵驛이 오랫동안 ‘ 의정부북부議政府北部 ’역이었다. 동서울 · 서대전 · 북대구 · 남춘천이 다 서울동부 · 대전서부 · 북구대구 · 남부춘천 따위가 아닌데 의정부는 우리말 ‘ 부 ’음을 두 번 겹쳐 쓰면서까지 왜 북의정부가 아니고 의정부북부였나. 어떻게든 첩자를 써서 우리말을 개질량치는 습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새로 생긴 ‘ 동묘앞 ’역은 동묘東廟의 앞에 있지 않고 바짝 그 뒤에 있다. 삼선교三仙橋 · 돈암敦巖 · 이수梨水 등의 역을 그 역세권에서 벗어나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대학 이름으로 바꿀 때는 오히려 ‘ 앞뒤 ’따위를 안붙이면서 동묘에는 왜 뒤도 아닌 앞을 덧붙이는가. 그리고 거기에 병기한 영자로는 그냥 Dongmyo이다. 거기에 front 따위 군더더기가 붙을 생각을 않는다. 역 이름에 ‘ 입구 ’니 ‘ 앞 ’이니 하는 군더더기가 전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기는 것마다 붙어 우리말의 연문화衍文化에 일조를 하는 것이다. 구로공단九老工團이 까닭없이 구로디지탈단지로, 가리봉이 가산디지탈단지로 한 구절로 늘이듯 바뀐다. 우리것인 전자가 진부하고 구적거린다는 이유에서다. 전같으면 구로공단은 먼저 생긴 구로가 있으니 신구로로, 가리봉은 그 동명이 타구他區로 개편되어 가산으로 바뀌게 되면 그저 ‘ 가산 ’으로 족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 가능可能한 한限 ’은 ‘ 가능한 ’으로 단축하여 ‘ 可能한 ’인지 ‘ 可能限 ’으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으로든 말이 될 수가 없게 한다. 그리고 ‘ 애시당초 ’는 애당초의 잘못된 말이니 쓰지 말라는 시비나 일삼는다. ‘ 당초 ’를 강조한 것이 애당초이고 이를 더 강조한 게 애시당초 아닌가. 한편으로 ‘ 이유 ’와 ‘ 때문 ’을 하나씩만 써야할 때 이를 겹쳐 말의 맥과 기를 죽인다. ‘ 그 때문이다 · 그런 이유에서다 ’할 것을 ‘ 그 이유 때문 ’이라 하는 것이다.

첩자를 엄금한 한문에도 ‘ 미취지전未娶之前 ’과 같은 예외가 하나 있었다. 미未와 전前이 같은 자는 아니라도 같은 뜻을 역할하는데 겹쳐 썼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말로 직역된 영향인지 남자가 장가들기 전을 ‘ 미장가전 ’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이런 예외는 하나 뿐이었다. 맹세 의지를 말할 때 ‘ 죽기 전에는 ’, 또는 ‘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지금은 여기의 ‘ 전에는 ’을 반드시 ‘ 전까지는 ’이라 한다. ‘ 전 ’이든 ‘ 까지 ’든 하나만 써야 되는데 겹쳐 써서 기어코 말의 날을 넘기는 것이다. 낫이나 칼을 숫돌에 갈 때 날이 서는 것을 잘 감지해야 한다. 날이 선 것을 모르고 갈면 선 날이 상해 다시 무디어지는 것을 날이 넘는다 한다. 공감共感을 얻는다면 될 것을 공감대共感帶를 얻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 대帶 ’가 뜻도 모르고 갖다 붙인 연문衍文인데 공감대가 되면 이를 ‘ 얻는 ’게 아니라 ‘ 이룬다 ’해야 어울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총알탄 사나이 ’라고 해서 나는 총알을 타고 날아가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게 아니고 총알같이 빠른 사람이라 한다. 총알이면 총알이고 총탄이면 총탄이지 어찌 총알탄인가. 비명悲鳴도 거개가 ‘ 비명소리 ’이다. ‘ 비명 ’자체가 매우 슬프거나 위급해 놀랄 때 지르는 ‘ 외마디소리 ’이다. ‘ 외마디소릿소리 ’라 함과 같다. ‘ 함성喊聲소리 · 고함高喊소리 ’가 방송언어로 정착하는 것은 또 어떤가. 방송인이나 기자가 광주光州나 전주全州에 가서는 흔히 ‘ 예향藝鄕의 고장 ’에 왔다고 입을 뗀다. 그냥 ‘ 예향에 왔다 ’고 하는 걸 못본다. 예향은 예술의 고향이요 고장故場은 지방도 되지만 고향을 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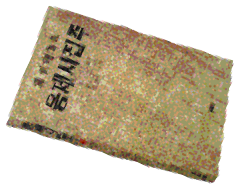
으례 높이가 높다 · 너비가 넓다 · 크기가 크다는 식으로 말하고 구문構文을 한다. 고도

5면으로 계속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 · 지명 · 사물 색인

응 제 시 집 주

應 制 詩 集 註



權 近 原作
權 擥 集註
權 光 旭 譯註

《陽村會報》에 95년부터 98년까지4년에걸쳐연재한노작의역주문을 모아 다시 교열 • 수정하고, 완전히 띄어쓰기를 하여 새롭게 조판한 원문과 인명 • 지명 및 사물 색인을 추가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應制詩란옛날중국황제의명에응하여지은시란뜻이며조선개국초에撰表 사건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때 陽村이 明에사신으로가太祖朱元璋을전대하여이를해결하고시문을주고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 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 양촌이 명 태조에게 지어 올린 24수의 시와 황제가 직접 지어 양촌에게준3수의 시 및 중국 문인들의응제시와序跋文등이실리고거기에 양촌의 손자 所閑堂 權擥의방대한분량의 해석과 集註가첨가되어 한권의책을 이룬 것입니다.

신국판 352면 • 값 15,000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전화 (02)734-3085전송 (02)738-8935